2021 08월 우크라이나 기도편지

샬롬! 주님안에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.
가까운 분일수록 임종 소식은 저의 죽음은 더욱 가까이 여겨집니다,
몇 분들의 소천 소식으로 저의 죽음이 코 앞에 있듯 하루를 보냅니다.
정한규 김혜경 선교사 드립니다.

지금 여름 피서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오데사 역의 모습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,200명 정도이어서, 집단 면역이 형성e된 것같이 코로나의 두려움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. 입니다. 그러나 현재까지 백신 접종 완료가 9%밖에 되지 않는데도, 너무 방심하지 않는 지 걱정이 됩니다.

하루속히 우크라이나 피서객처럼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.



길장된 여름성경학교



주일학교 다샤와 크리스지나 선생님이 올해는 여름성경학교를 꼭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. 지난 해에 코로나로 하지 못해 주일학교가 많이 침체된 상태였습니다.

한편으로는 기특하지만, 코로나때문에 망설였지만, 두 교사의 의지가 너무 강해 마지못해 슬쩍 허락했습니다.



다샤와 크리스지나는 10년 전에 한글학교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성장한 여자 디모데와 같은 일군입니다. 이들이 신앙 생활해 온 것을 되돌아 보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



1.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도감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.
2. 주일 학교 자녀들이 10년 후에 교회 일군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